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학교의 사회적 역할 제고

Considering the Role of the Community School

김 속 정*

Kim, Suk-jeong

1. 시작하며

본 투고자는 교육시설 전문가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시설의 공간적 활용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더 더욱 문외한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 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학교현장 지원하면서 학교시설 복합화가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들여 짐을 피부로 느끼며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 또한, 글로써 의견을 나타내는 과정에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표현함에 있어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며 학교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시설 복합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개방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학교당국과의 마찰로 인하여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일년에 백 여건이 넘을 만큼 개방의 욕구만큼 민원처리도 하나의 힘든 업무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님을 우리 교육청 관계자는 매우 잘 알고 있다. 이는 시대적 요청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학교시설 관리로 인하여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당국과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잦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접하면서 이제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학교시설이 더 이상 학생만의 활용 공간으로 인식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또한, 학교는 더 이상 학교장과 몇몇 관리자의 전유물이 아님도 학교현장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여기서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에 앞서 왜 학교시설이 개방되어야 하는지, 또한 학교관리자는 왜 개방을 꺼리는지, 또한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1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

농산어촌에 위치한 학교를 가끔 방문하면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나 이른 아침에는 어김없이 지역주민이 운동장을 뛰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시설 활용은 활동공간이 넓은 농산어촌보다 오히려 빌딩숲에서 생활하는 도시가 더 절실하다. 그럼에도, 개방에 대한 요구만큼 인식한 것이 못내 아쉽다.

1) 평생학습 사회의 학교의 역할

학교는 학생들의 활동이 주가 되어야 함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교시설을 모두 다시 활용해야 한다면 학부모나 지역주민은 아무도 학생들의 학습활동을 방해하면서까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학교를 개방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학부모라면.

가) 학생과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정규교육과정 외에 방과 후 다양한 청소년 수련활동,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하여 학교를 개방하거나 학교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의 가장 적절한 장소는 바로 학교일 것이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 장학관

나) 지역 평생교육 센터로서의 학교

학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의해 지역주민의 여가, 오락, 교양증진, 직업교육, 지역커뮤니티 기여를 통해서 양성된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학교 가꾸기로, 청소년 보호자로, 학습활동 보조자로 다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평생교육의 생산성과 효용성은 물론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사회의 문화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이 바로 학교이다.

다)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

도시의 학교는 대개 3개에서 4개의 동으로 둘러싸여 있다. 달리 표현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현장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학교시설은

첫째, 지역주민의 문화센터이다.

도시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각종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공간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만큼 멀고 유료이거나 시설이 복잡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개설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유료 문화센터의 경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학교는 이러한 불편함을 모두 해소할 수 있는 시설 공간을 지닌 곳이 학교다. 언제든지 가족이나 지역주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의 경우 가정처럼 학교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기에 특히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 체육시설에 대한 개방 목소리가 높은 곳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의 경우 반여 1, 2, 3, 4동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해서 초등학교를 전면 개방하고 공간이 부족해서 개설하지 못한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개설하고 일정액의 시설 이용료를 학교에 지불하며 다양한 우수 강사들을 학교 교육과정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은 우수 강사들에게 무료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win-win 하는 대단히 긍정적인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둘째, 학교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작은 공공도서관이다.

부산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대부분이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공간이 협소해서 편안하게 책을 읽고 토론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하다. 더구나 방문객을 위한 열람실의 경우 각종 수험생의 전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순수하게 독서를 위해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대출 반납 업무가 대부분일 만큼 제 기능을 충분히 못해내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도서관의 개방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새로운 개념으로 본 또 하나의 주차공간이다.

학교현장 장학활동 시 학교운동장 지하공사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족한 주차공간에 차량을 아직도 주요 재산의 일부로 가급적 대형을 선호하는 국민 성향에 비해 자동차를 생활필수품으로써 이동수단으로 생각하는 이웃 일본의 주거생활 문화를 비교해 본다면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쨌든 부족한 주차공간을 학교운동장 복합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매년 추석이나 설날 등 민족 대이동을 하며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 운동장을 활짝 개방하고 운동장에 차량 주차선을 그어서 배려하는 학교를 보면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1.2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

그러나 이처럼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해야 할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민원을 일으키면서까지도 개방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학교 현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교측면에서 주장하는 학교시설 개방 시 어려움은 있다.

첫째, 학습권의 침해이다.

학교시설 개방시간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는 상관없으나 학생들의 귀가시간 또는 학교의 일과시간(오후 4시 30분 이전)이 끝나기 전에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활동에 방해받는다 고 개방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한다. 또한, 일과시간 후에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운동장과 체육관을 제외한 도서관, 강당, 화장실, 다목적실, 조리실 등 개방 대상 시설들이 대부분 학교건물의 중앙 또는 중앙을 지나야만 갈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어 특별실 한 곳만 개방하더라도 학교시설 전체가 노출되어 관리 면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교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전용 공간으로서 조금 만 훼손되면 다음날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를 해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일과가 끝난 후 화장실 청소 이후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 후 청소도 고스란히 다음날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대단히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치는 인성교육에 대한 영향도 대단히 크다.

실제로 동래구 금정구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장의 의지는 대단하였으나 도서관이 4층 건물의 2층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층의 개방을 막기 위한 차단벽 설치 등 개방을 위한 부대시설 설치가 대단히 힘들었던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 개방이 이처럼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교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일과시간 중에 상호 협의해서 이용토록 한 결과 걱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

① 각종 민원의 획기적인 감소이다.

저출산 핵가족 시대에 다소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와 학부모와의 갈등이 끊일 날 없이 각종 민원으로 시달리던 학교에 민원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늘 주변자의 입장에서 학교를 바라보고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교를 자주 방문하게 되다 보니 학교교육 활동을 이해하게 되었고 오히려 돕겠다고 나서는 등 동참하게 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으로 교육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② 체험 중심의 실천적 인성교육 및 생활지도 효과이다.

실제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어른들께 공손하게 인사하는 습관이 저절로 몸에 배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학교에 친구들과 선생님이 아닌 외부 사람들이 들락거리니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대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가까이 달려가 친절하게 맞이하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 저절로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의 효과를 얻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나 지역주민들도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면서 학생과 학교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은 물론 시설관리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깊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이 동시에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관리자는 개방할 경우 학습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 강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둘째, 일과시간 이후 개방 시설을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과 전담인력이 없다.

학교의 모든 시설관리는 학교장의 책임으로서 유지·보수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을 제외하고 인재로 인한 화재나 기물파손 등 각종 시설 파괴의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장의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인사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수순이어서 관리자는 가급적 시설 개방을 꺼려한다. 오히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교사들이 고용직 시설관리자와 함께 숙직을 하면서 학교를 관리하였으나 요즘은 대부분의 학교가 과도한 인건비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고려해서 일과시간 이후에는 전문 기관에 안전을 위탁해서 자동안전 무인관리시스템 장치로 학교를 관리하고 있다. 즉, 일과가 끝나면 다음날까지 학교시설을 단단히 잠그고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 어찌면 관리인력일 것이다. 이용이 끝난 이후 화재나 도난방지를 위한 시건장치, 청소, 창문 개폐, 차량관리, 야간 조명 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시설만 개방해 주는 것이 아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경우 대상자를 모집하고 시간을 편성하고 강사를 섭외하는 등 여러 가지 관련 업무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반드시 개방에 따른 전담인력이 맡아야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다.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학교를 개방하고 학교 주변에 현수막까지 설치해서 이용을 권장하였는데 실제 이용자가 없어 야간까지 냉난방비 등 관리비만 더 부담을 안게 되어 다시 폐쇄조치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 이처럼 학교시설의 위탁 또는 단순 개방은 시설관리의 2차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서 개방에 앞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실제로 해운대의 한 초등학교를 개방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학교의 부담을 우려해서 시교육청 예산을 활용해서 채용한 바 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건비를 본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셋째, 개방 시의 관리 및 책임이 불분명하다.

학교관리자가 학교시설 개방을 꺼려하는 이유는 개방에 따른 불분명한 책임소재이다.

이용을 함에 있어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면 상관 없으나 화재나 기물파손, 각종 기기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부분의 책임을 학교 관리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까지 개방하고 관리 책임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서 개방에 흔쾌히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지금까지 학교시설 개방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개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 사회의 개방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설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자체를 비롯한 각종 관계기관의 노력과 학교교육 전문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무조건 개방하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학교시설을 활용함에 앞서 학교의 무한대적 책임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용자도 생각해야 하는 등 인식의 전환도 있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나 시의회가 열릴 경우 학교시설 개방과 복합화에 따른 질의와 응답은 늘 반복되고 있으나 명확한 해결책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자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장차 학교시설을 개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교육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진행 정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이처럼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주민 평생학습 공간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 회피이다.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 평생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라는 편견이다. 학생들을 위해서 건축하는 시설에 관한 각종 비용을 지역주민의 이용을 끌어들이어서 떠넘기고자 한다는 오해가 팽배하고 구호로만 평생학습사회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질적인 지원과 관심은 아직 후진국 수준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시설 개방에 따른 제반사항들을 지자체와 상호협력하고 노력해서 학교는 연간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모든 시설관리의 부담을 덜어나감으로써 오히려 학교예산은 학생들의 교육활동비로만 사용할 만큼 교육적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을 방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수영장, 체육관, 조리실, 도서관 등을 일과 중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사용하고 일과 후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주 1회 정도 지자체 관계자와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분과 교육과정 진행과 시설 활용 시간을 협의하여 주간 운영계획표를 짜나감으로써 시설공유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협력과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신축되거나 증축, 개축되는 학교의 경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만 더해진다면 학교시설 복합화라는 과제는 그렇게 멀고 힘든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둘째, 교육시설 관계 공무원의 인식문제이다.

얼마 전 한 교직원체로부터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성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건축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학교도서관을 바닥을 갈고 벽을 허물고 위치를 변경하는 등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기막힌 관리자가 있어 고발하니 조치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업무 담당관으로서 실태 조사차 현장에 가본 결과 4층 복도 왼쪽 끝에 4칸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 시 만들었으나 학생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려 하니 전 건물이 개방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1층 교무실 옆으로 옮기고 4층 도서관을 학생전용 다목적실로 활용하고자 재공사 중이라는 것이었다. 학교장의 의견도, 제보한 교직원체의 의견도 분명히 일리가 있었다.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실을 옮기는 조치를 취한 바는 있으나 그 이후 시설과와 협의해서 신

축이나 증축, 개축 시 특별실이나 다목적실의 경우 해당과와 반드시 상의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설계하여 이중 예산낭비의 불합리한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방향도 기능성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육실, 평생학습실, 각종 실험실습실, 조리실, 체험학습실 등은 반드시 교육전문직, 외부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상의해서 설계되어야 하고 이용자를 고려한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셋째,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복합화에 따른 인식문제이다.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학부모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의 신축, 증축, 개축과 관련해서 설계의 방향을 묻는다면 “왜 우리에게 묻느냐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학교 건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녀나 생계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예견된다면 강력히 반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이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의 지역사회와 관점에서 학교는 더 이상 교육전문가들의 생각에만 의지해서 건축되어서는 안된다.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해서 유목적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물질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힘을 더해야 한다. 반대로 지역주민들도 학교에 대한 무관심한 자세에서 벗어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부단한 문제제기 및 개선요구가 있어야 한다. 학교부지 공동 활용에 대한 건의와 지자체의 학교시설에 대한 관심제고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지자체장과 학교장이 함께하는 장을 마련하여 의견을 제

기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이 우리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평생학습센터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아야 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방안도 모색될 때 학교시설 복합화가 그 목적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나오며

학교시설 복합화는 학교의 부지 내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위한 보육, 교육, 평생교육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축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학교시설 복합화는 점진적으로 가속화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건강과 학습에 대한 욕구가 더해지는 사회 현상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과 복합화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을 위한 설계에 앞서 반드시 학교당국, 지자체관계자,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시설 전문가, 교육청 교육정책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서 철저한 의견수렴이 우선 되어야 한다. 복합화만을 위해서 절차가 무시된 시설은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거나 또 다른 예산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의견수렴, 관련예산 확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주민참여, 지자체의 협력과 명확한 역할분담 등이 병행될 때 학교가 중심이 되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일어나는 교육공동체의 의식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